

1. 다음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 임금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백성의 신뢰를 얻어야 하며, 씬씀이를 줄이고 백성을 사랑해야 한다. 신하는 말은 직분을 경건히 수행하고 녹봉은 그 다음에 생각해야 한다.

- ① 직업의 궁극적 목적은 생계유지에 있다.
- ② 직업은 신(神)의 부르심에 응하는 것이다.
- ③ 직업은 신이 부과한 것이며 노동은 속죄의 행위이다.
- ④ 각자 맡은 직분에 충실할 때 사회 안정이 이룩된다.
- ⑤ 분업을 통한 직업 수행은 인간을 상품 생산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킨다.

4번, 제시문은 공자의 주장이다. 공자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정명 정신을 강조하고, 이러한 자세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실천할 때 공동체의 안정이 이룩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① 공자는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 각자 자신의 직분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였다. ② 칼뱅의 입장이다. 그는 직업을 소명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직업 생활을 통한 부의 축적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③ 중세 그리스도교의 입장이다. 104 쪽 105~109 쪽 자료 분석 노트 ⑤ 마르크스의 입장이다. 그는 분업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이 인간 소외를 심화시킨다고 보았다.

2. ㉠, ㉡에 들어갈 직업 윤리의 특징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책임 의식이나 성실함은 모든 직업에서 공통으로 지켜야 하는 행동 규범으로 직업 윤리의 (㉠)에 해당한다. 한편 환자의 의료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의사 윤리는 각각의 직업에서 지켜야 하는 특수한 행동 규범으로 직업 윤리의 (㉡)이라고 한다.

	㉠	㉡		㉠	㉡
①	일반성	보편성	②	상대성	일반성
③	일반성	특수성	④	특수성	일반성
⑤	상대성	보편성			

3번, 직업 윤리에는 성실, 책임 의식과 같이 모든 직업에서 요구되는 보편적인 윤리 규범이 있으며, 의사 윤리나 변호사 윤리와 같이 각각의 특수한 직업에서 요구되는 윤리 규범도 존재한다. 전자를 직업 윤리의 일반성, 후자를 직업 윤리의 특수성이라고 한다

3. 갑, 을의 입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 우리는 신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삶의 모든 행위를 할 때 그의 부르심에 주목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신은 그 같은 삶의 양식들을 소명(召命)이라고 명하였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신께서 정해 주셨다고 생각해야 한다.

을 :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은 상품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생산을 통하여 노동자를 하나의 상품으로 생산해 낸다. 그런가 하면 노동자의 노동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강제된 것이다. 더 나아가 소외된 노동은 인간의 삶을 생활 수단으로만 간주함으로써 인간에게 고유한 자유로운 의식적 활동으로부터 인간을 소외시킨다.

- ① 갑은 노동을 신의 명령이라고 본다.
- ② 갑은 직업적 성공을 구원의 증표라고 본다.
- ③ 을은 분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 ④ 을은 자본가가 노동 착취를 통해 자본을 축적하고 있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노동이 갖는 생계 수단 이상의 가치를 중시한다.

3번, 갑은 칼뱅, 을은 마르크스이다. 칼뱅은 모든 직업이 신의 부름, 즉 소명에 따라 주어지는 것으로 금욕적 태도를 바탕으로 직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직업적 성공을 구원의 증표라고 보았다. 마르크스는 노동을 인간의 본질을 실현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가 상품 생산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인간 소외 현상이 생겨나며, 분업은 인간 소외 현상을 심화시킨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③ 마르크스는 분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다

4. 다음 한국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아껴 쓰는 데 있고, 아껴 쓰는 것의 근본은 검소함에 있다. 검소해야 청렴할 수 있고 청렴해야 자애로울 수 있으니 검소함이야말로 목민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힘써야 할 일이다. 요즘 수령으로 부임하는 사람들은 책력(冊曆) 이외의 다른 책은 한 권도 행장에 넣지 않는다. 임지에 가면 으레 많은 재물을 얻게 되어 돌아오는 행장이 무겁기 마련이니 한 권의 책도 부담이 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슬프다, 그 마음가짐의 비루함이 이와 같으니 어찌 목민인들 제대로 할 것인가.

- ① 청렴은 목민관의 모든 과오를 면책시켜 주는 덕목이다.
- ② 목민관에게 청렴은 관직 상승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 ③ 백성을 위해 일하는 목민관에게 어느 정도의 부패는 필요악이다.
- ④ 목민관에게 청렴은 애민(愛民)과 봉공(奉公)을 위해 필요한 덕목이다.
- ⑤ 세상에 밝혀지지 않는다면 사사로운 청탁은 일정 부분 허용되어야 한다.

4번, 제시문은 정약용의 『목민심서』의 일부이다. 그는 목민관의 기본 자세로 청렴을 강조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愛民)과 공적인 일에 헌신하는 봉공(奉公)의 덕목을 바탕으로 공직을 수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바로잡기 ①, ②, ③, ⑤ 정약용은 청렴을 바탕으로 애민과 봉공의 덕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어떠한 이유로도 목민관의 부패를 정당화하지 않았다

5.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업에도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
- ② 기업의 활동이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
- ③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
- ④ 공동선의 추구가 기업의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
- ⑤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어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

4번, gaps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이윤 극대화에 있다고 본다. 이와 달리 Ul은 이윤 추구 이외에도 공동선과 공익에 기여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바로잡기 ④ Ul도 이윤 추구를 기업의 기본적 목적으로 본다

5 gaps은 긍정, Ul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gaps :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때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할 경우 오히려 기업의 이익 증대가 어려워질 수 있다.
 Ul : 자유 경제에서 기업의 존재 이유는 오로지 게임의 규칙을 준수하면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은 속임수나 기만행위 없이 자원을 활용하고 이윤 추구 활동에 매진해야 한다.

- ① 기업의 유일한 책임은 이윤 극대화에 있는가?
- ② 기업은 이윤 추구 과정에서 법을 지켜야 하는가?
- ③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어떠한 방법도 동원할 수 있는가?
- ④ 기업은 시장의 질서를 존중하는 가운데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가?
- ⑤ 기업은 장애인 고용, 환경 보전 활동을 자신의 책무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5번, gaps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윤 추구 행위로 한정하는 입장인데 비해, Ul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윤 추구 행위 이외에도 공익 실현의 책임까지 확장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gaps과 Ul은 기업의 목적이 이윤 추구에 있다는 점에는 동의한

다.바로잡기 ㄱ. 같은 이윤 추구 행위를 긍정적으로 본다.ㄴ. 을은 갑에 비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6. ㉠,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통 사회에서는 개인의 도덕성을 바탕으로 도덕적인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 계층 간의 갈등, 빈부 격차, 인종 차별, 부정부패 등과 같은 문제는 (㉠)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이에 공동선과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이/가 등장하게 되었다.

- ① ㉠은 개인의 도덕성 타락을 윤리 문제의 원인으로 본다.
- ② ㉠은 개인의 도덕성 함양을 통해 윤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 ③ ㉡은 사회 구조와 제도의 부조리를 윤리 문제의 원인으로 본다.
- ④ ㉡은 개인의 양심과 이타심만이 정의로운 사회 실현의 필수조건이라고 본다.
- ⑤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 ㉡의 조화가 필요하다.

4번, ㉠은 개인 윤리, ㉡은 사회 윤리이다. 사회 윤리적 관점에 따르면 사회 구조와 제도의 부조리가 윤리 문제의 원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바로잡기 ④ 사회 윤리적 관점은 개인의 양심과 더불어 사회 구조와 제도의 개선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7. 다음 사상가의 입장과 일치하는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서로 균등하지 않은 사람들이 균등한 몫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균등한 사람들이 균등하지 않은 몫을 받거나, 균등하지 않은 사람들이 균등한 몫을 차지하는 경우에 분쟁과 불평이 생긴다. 정의는 본성상 정치적 동물인 사람들 사이에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분배할 것을 요구한다.

<보기>

- ㄱ. 각자의 가치에 비례한 분배가 실현되어야 한다.
- ㄴ. 분배에서 정의는 기하학적 비례를 따르는 것이다.
- ㄷ. 기회와 혜택을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분배해야 한다.
- ㄹ. 개인의 필요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질 때 정의가 실현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번, 제시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다. 그는 분배적 정의가 각자의 가치에 비례해야 함을 강조했는데, 각자의 가치는 공동체에 기여한 바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분배적 정의는 기하학적 비례에 따른다.바로잡기 ㄴ. 절대적 평등에 따른 분배에 관한 설명이다. ㄹ. 필요에 따른 분배에 관한 설명이다

8.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집단과 집단 사이의 관계는 항상 윤리적이기보다는 지극히 정치적이다. 모든 도덕주의자들은 인간의 집단 행동이 지닌 야수적 성격과 모든 집단적 관계들에 있는 집단적 이기주의의 힘에 대한 이해를 결여하고 있다. 그들은 사회적 갈등이 인류 역사에서 불가피한 것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 ① 개인의 도덕성만으로 사회 정의 실현이 가능하다.
- ② 개인의 도덕성은 개인이 속한 집단의 도덕성보다 열등하다.
- ③ 개인들의 자발적 타협이 사회 정의 실현의 유일한 방법이다.
- ④ 개인 간 갈등은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정될 수 있다.
- ⑤ 개인이 선의지를 발휘하는 것은 사회 정의 실현의 충분조건이다.

4번, 제시문은 니부어의 주장이다. 그에 따르면 개인은 어느 정도 동정심과 배려심이 있으나 집단의 도덕성은 개인의 도덕성보다 떨어진다. 따라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도덕성 함양과 더불어 잘못된 사회적 관행이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바로잡기 ①, ③, ⑤ 니부어는 도덕성, 자발적 타협, 선의지 등 개인의 도덕성만으로는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고 보았다. ② 니부어는 개인의 도덕성보다 집단의 도덕성이 떨어진다고 보았다.

집단: •개인의 이기심은 집단의 구성원이 되면 극대화됨•집단 간 관계는 윤리적이기보다는 정치적임•집단 간 힘의 차이로 사회 갈등이 발생함•집단 간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적 강제력이 필요함•집단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임 → 정치적 강제력 필요

9. 다음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원초적 입장이란 무지의 베일을 쓴 상태로, 서로 간에 자신의 능력, 재산, 신분 등의 사회적 조건을 알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무지의 베일을 통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유리한 조건을 악용하지 않고 사회 정의의 원칙에 합의할 수 있다.

- 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분배 정책은 부당한가?
- ② 분배의 결과보다는 분배의 절차가 더 중요한가?
- ③ 기본적 자유는 차등의 원칙에 따라 제한 가능한가?
- ④ 개인의 소유 권리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가?
- ⑤ 정의가 실현되면 불평등은 반드시 사라져야 하는가?

2번,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롤스이다. 롤스는 분배의 결과보다 분배의 절차를 중시하는 절차적 정의를 강조하였다. 바른답·알찬풀이 31바로잡기 ① 롤스는 차등의 원칙을 통해 최소 수혜자 즉,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분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③ 롤스는 기본적 자유는 결코 침해하면 안 된다고 보았다. ④ 롤스에 따르면 개인의 소유 권리는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지만, 천부적 재능의 분포는 사회의 공동 자산이므로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그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⑤ 롤스의 사상은 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것으로 정의가 실현되어도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10~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갑: 정부가 시민의 근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시간을 강탈하고 그에게 다양한 활동을 명령하는 것과 같다.
을: 소득과 부의 공정한 분배는 사회적인 지위에 접근할 기회가 동등하게 부여되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혜택이 돌아갈 때 실현된다.

12. 갑, 을 사상가의 입장에 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갑은 소유권의 절대성은 침해될 수 없다고 본다.
ㄴ. 갑은 정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경시한다.
ㄷ. 을은 국가에 의한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ㄹ. 갑, 을은 정의가 실현되어도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4번, 갑은 노직, 을은 롤스이다. 노직은 개인의 소유 권리의 절대성을 강조하여 근로 소득에 대한 과세와 재분배 정책을 반대한다. 반면 롤스는 경제적 불평등이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개선해 주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고 보면서 국가의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노직은 자유 지상주의, 롤스는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정의가 실현되어도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바로잡기 ㄴ. 노직과 롤스는 정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13. 갑, 을 사상가가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 ① 기회의 균등이 평등한 자유보다 우선하는가?
- ② 절차나 과정이 공정하면 그 결과는 공정한 것인가?
- ③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될 때만 정당한가?
- ④ 모든 개인은 절대적·배타적인 소유 권리를 갖는가?
- ⑤ 무지의 베일을 가정해 정의 원칙을 도출해야 하는가?

2번, 갑은 노직, 을은 롤스이다. 노직과 롤스는 모두 절차적 정의를 강조한 사상가이다. 두 사상가 모두 분배의 절차가 공정하면 그 분배는 결과와 관계없이 공정하다고 본다. 바로잡기 ① 롤스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③ 노직은 부정, 롤스는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④ 노직은 긍정, 롤스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노직은 소유 권리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반면, 롤스는 부유한 사람의 소유 권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본다. ⑤ 노직은 부정, 롤스는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무지의 베일이란 사회적 기본 가치들을 분배하는 가상의 상황에서 이해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개인적 정보를 마치 베일을 씌

우는 것처럼 없애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14.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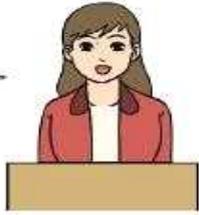
전제(專制)의 특성은 하나의 수단을 통해 다른 수단으로만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공직이라는 수단을 통해 우선적인 의료 혜택 등을 얻는 것이다. 복합 평등 체제는 이러한 전제와 정반대이다. 복합 평등의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 X가 시민 Y에 우선하여 공직에 선택된다고 해도, X가 공직에 있다는 이유로 그 외 모든 영역에서 우선적인 혜택이 X에게 주어져서는 안 된다.

- ① 모든 분배는 자유 교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 ② 모든 사회적 가치는 필요의 원칙에 의해서 분배되어야 한다.
- ③ 사회적 가치들은 서로 다른 사회에서도 보편적 의미를 갖는다.
- ④ 사회적 가치들이 고유한 영역에 머무를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
- ⑤ 다원적 평등의 실현은 특정한 가치가 다른 영역의 가치들을 지배할 때 실현된다.

4번, 제시문은 복합 평등을 주장한 왈처의 주장이다. 복합 평등이란 특정 영역의 사회적 가치가 지배적 역할을 하여 다른 영역을 획득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신의 고유한 영역 안에 머무르는 것을 말한다.

15. ㉠에 들어갈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부유세는 일정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비례적으로 또는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이러한 제도는 시급히 도입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 입니다.



<보기>

- ㄱ. 부의 재분배를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기 때문
- ㄴ. 빈부 격차를 완화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때문
- ㄷ. 정당하게 얻은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
- ㄹ. 세금을 두 번 부과하는 것과 같아서 부자들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기 때문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번, 분배 정의 실현과 관련하여 부유세의 도입 여부에 대한 윤리적 쟁점이 있다. 이러한 조세 정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부의 재분배를 통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거두어들이는 세금을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면 빈부 격차를 완화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잡기 ㄷ, ㄹ. 부유세 도입을 반대하는 논거이다

16.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은/는 처벌의 근거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준 사실만을 처벌의 근거로 보는 관점이다. 또한 처벌의 경중을 범죄의 해악 정도에 비례하여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① 처벌의 목적을 범죄 예방에 있다고 본다.
- ② 처벌의 본질을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
- ③ 처벌의 본질을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동등한 해악을 가하는 것이라고 본다.
- ④ 처벌로 인한 고통이 처벌로 인한 효용보다 지나치게 크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 ⑤ 처벌의 목적은 처벌을 본보기로 삼아 사회 전체의 효용을 높이는 것이라고 본다.

3번, ㉠은 응보주의이다. 응보주의에 따르면 처벌은 범죄 행위에 대한 인과 응보적 응징이다. 따라서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동등한 해악을 가하는 것이 처벌의 본질이다. 바로잡기 ①, ②, ④, ⑤ 공리주의의 입장이다

17.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 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 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써 가해질 수 없다. 오직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에게 가해져야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타인의 의도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될 수 없기 때문이다.

<보기>

- ㄱ. 형벌은 동등성의 원리를 따를 때 정당성을 갖는다고 본다.
- ㄴ. 형벌을 통해 범죄가 예방될 때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된다고 본다.
- ㄷ. 형벌은 존엄한 인간에게 고통을 초래하므로 그 자체로 악이라고 본다.
- ㄹ. 형벌은 다른 목적이 아닌 범죄자가 범죄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부과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번, 제시문은 칸트의 주장이다. 칸트는 대표적인 응보주의 사상가로 형벌의 정도는 범죄의 해악과 일치해야 하며, 아무리 범죄자라도 범죄 예방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받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바로잡기 ㄴ, ㄷ. 공리주의의 입장이다.

18.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 아래 두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이 두 군주의 손에 달려 있다. 모든 입법의 목적은 사회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행복을 감소시키는 것은 악이므로 모두 제거해야 한다. 모든 형벌은 큰 악을 제거할 수 있다면 허용되어야 한다.

<보기>

- ㄱ. 형벌 그 자체의 본질은 악인가?
- ㄴ. 형벌은 사회적 유용성 증진의 수단인가?
- ㄷ. 형벌은 범죄 예방을 위한 일종의 본보기인가?
- ㄹ. 형벌의 정도는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4번, 제시문은 벤담의 주장이다. 공리주의자인 벤담에 따르면, 모든 형벌은 고통을 초래하므로 악이지만, 범죄자가 형벌을 받으면서 느낄 고통보다 사회의 이익이 크면 형벌은 정당화될 수 있다. 또한 형벌을 일종의 본보기라고 하면서 형벌이 지닌 예방적 효과에 주목하였다. 바로잡기 ㄹ. 칸트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19. 갑, 을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 사회 계약의 목적은 계약자의 생명 보존에 있다. 이를 위해 모든 것을 공동체에 양도함으로써 일반 의지의 감독하에 둔다. 살인을 저질러 계약을 위반한 자는 공공의 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을 : 법의 일반적 목적은 해악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형벌은 악이다. 공리의 원칙에 의하면, 형벌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는 그것을 통해 더 큰악을 제거하는 것이 보장될 때뿐이다.

<보기>

- ㄱ. 갑 : 사형은 사회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다.
- ㄴ. 을 : 사형의 근본 목적은 살인범에 대한 응당한 보복이다.
- ㄷ. 을 : 사형의 해악은 사형이 방지할 해악보다 커서는 안 된다.
- ㄹ. 갑, 을 : 살인을 저지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번, 갑은 루소, 을은 벤담이다. 루소는 사회 계약의 관점에서 사형 제도를 찬성한다. 그에 따르면 사회 계약 과정에서 사람들은 살인자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호받기 위해 국가에 살인자에 대한 생명 박탈권을 부여한다. 한편 공리주의 사상가인 벤담에 따르면, 모든 형벌은 사회적 유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형벌을 통해 얻으려는 유용성보다 처벌로 인한 고통이 지나치게 클 경우 형벌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바로잡기 나, 르. 응보주의의 입장이다

20.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갑 : 사형은 한순간에 강렬한 인상만 줄 뿐이다. 반면에 종신 노역형은 더 큰 공포를 준다. 구경꾼은 수 형자가 당하는 고통의 합산을 고려하므로 인간 정신에 미치는 효과가 사형보다 크다. 처벌이 지속적 효과를 가질 때 범죄를 더 잘 예방할 수 있다.

을 : 사법적 처벌은 사회적 선을 증진시키는 수단으로 행해져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해져야 한다. 인간은 수단으로 취급될 수 없기 때문이다.

- ① 국가는 사형을 집행할 권리가 있는가?
- ② 사형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것인가?
- ③ 계약론에 근거하여 사형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가?
- ④ 범죄 예방 차원에서 사형 제도의 존폐를 논해야 하는가?
- ⑤ 범죄자는 잘못된 행동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4번, 갑은 베카리아, 을은 칸트이다. 베카리아는 국가의 생명 박탈권을 부정하기 때문에 사형을 반대한다. 또한 형벌의 범죄 예방 효과는 강도보다 지속성에 있기 때문에 사형보다는 종신 노역형이 더욱 효과적인 형벌이라고 보았다. 반면 칸트는 살인에 대한 정당한 처벌은 사형 이외에는 없음을 강조하고, 사형은 동등성의 원리에 부합하며, 사형이 범죄자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바로잡기 ① 갑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②, ⑤ 을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③ 갑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베카리아는 국가의 형벌권은 사회 계약에서 비롯되지만,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박탈할 권한은 없으며 사형은 국민에 대한 선전 포고라고 주장하였다

21. (가) 사상가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 B에 들어갈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모든 공동체는 어떤 선을 목적으로 하여 성립된다. 왜냐하면 인류는 항상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획득하기 위해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모든 공동체가 어떤 선을 목표로 한다면, 모든 공동체 가운데 가장 상위의 것이며, 또한 나머지 공동체를 모두 포함하는 국가 또는 정치적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보다 더 나은 선 또는 최상위의 선을 목표로 할 것이다.
(나)	

- ① A : 국가는 계약의 산물인가?
- ② A : 국가의 권위는 천명(天命)에 의해 정당화되는가?
- ③ B : 타국과 자국을 똑같이 사랑해야 하는가?
- ④ B : 국가는 인간 본성에 따라 성립된 것인가?
- ⑤ B : 인간은 국가 공동체 안에서만 최선의 삶이 가능한가?

3번, (가)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며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때만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 ①은 사회 계약설, ②는 천명의 관점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요'라고 답할 것이므로 A에 들어갈 질문으로 적절하다. 바로잡기 ③ 목자의 입장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요'라고 대답할 것이므로 B에 들어갈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22. 다음 사상의 입장과 일치하는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모든 인간은 천부의 권리를 가지는데, 자연 상태에서는 이러한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 확실하지 않다. 그래서 각 개인은 생명, 자유, 재산에 관한 자연법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국가를 형성하게 되었다.

<보기>

- ㄱ. 국가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 ㄴ. 국가의 권위는 인간의 본성에서 유래된 것이다.
- ㄷ. 국가의 권위는 자발적 동의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 ㄹ. 국가의 권위는 시민을 위해 발휘될 때 정당화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3번, 제시된 사상은 사회 계약설이다. 사회 계약설에 따르면 국가는 시민의 자발적 동의에 의해 생겨난 것이므로, 국가의 권위는 시민을 위해 발휘될 때 도덕적 정당성을 갖는다. ㄱ. 국가의 권위에 대한 유교의 입장이다. ㄴ. 국가의 권위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다

23. (가)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제시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	사람들은 사회에 들어갈 때 그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및 집행권을 사회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의 수중에 양도한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모든 사람이 그 자신, 그의 자유 및 그의 재산을 더욱 잘 보존하려는 의도에서 행하는 것이다
(나)	국가는 시민에게 소득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내거나 일정기간 군 복무를 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 ① 시민 스스로 동의했기 때문이다.
- ② 국가의 요구는 신(神)의 명령과 같기 때문이다.
- ③ 인간이 본성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했기 때문이다.
- ④ 사유 재산 발생으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 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이다

1번, ㄹ 사상가는 로크이다. 로크는 사회 계약설을 바탕으로 국가 권위의 근거를 시민 간 동의라고 본다. 이에 따라 국가는 권위를 가지게 되며, 시민에게 다양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바로잡기 ② 중세 그리스도교의 입장이다. ③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다. ④ 로크는 노동을 통해 생겨난 이익이나 사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⑤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본 사상가는 홉스이다.

24. 다음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훌륭한 군주는 백성의 생업을 마련해 주는데, 반드시 위로는 부모를 섬기기에 충분하게 하고 아래로는 처자식을 먹여 살릴 만하게 한다. 그렇게 한 후에 백성을 인도하여 선(善)에 이르도록 하므로 백성이 따르기 쉽다.

<보기>

- ㄱ. 군주는 모든 나라를 똑같이 사랑해야 하는가?
- ㄴ. 군주는 백성의 생계를 보장할 책임이 있는가?
- ㄷ. 군주는 민본주의를 토대로 정치를 해야 하는가?
- ㄹ. 군주는 엄격한 법을 나라 운영의 근본으로 삼아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번, 제시문은 맹자의 주장이다. 그는 민본주의를 바탕에 둔 정치를 강조하였으며, 군주는 백성의 생업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바로잡기 ㄱ. 목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ㄷ. 한비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25. 다음에서 추론할 수 있는 국가 권위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가는 무임승차자를 처벌하고 사회적 협력의 보장자로 기능한다. 도둑과 강도를 체포하거나 가둠으로 써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부녀자의 안전 귀가를 보장하는 일도 국가가 맡은 역할이다. 그런가 하면 교통 정리를 하는 경찰의 모습에서, 혹은 운전자나 보행자의 우측 통행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음주 운전이나 속도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임무도 국가가 맡은 역할이 아니겠는가.

- ① 국가의 통치권은 하늘이 부여한 것이기 때문이다.
- ② 국가 권위는 신으로부터 부여된 것이기 때문이다.
- ③ 국가가 공공재와 관행의 혜택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 ④ 국가의 권위는 자연법적으로 마땅히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 ⑤ 국가는 공동체를 구성하려는 인간의 본성에 따라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다.

3번, 제시문은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다. 혜택론에 따르면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와 관행의 혜택이 국가 권위를 정당화하는 근거이다. 바로잡기 ① 국가 권위의 근거를 천명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 ② 그리스도교적 관점이다. ④ 자연법적 관점이다. ⑤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다

26. 동양 사사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엄한 형(刑)은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이고 무거운 벌은 백성이 싫어하는 것이다. 성인(聖人)은 두려워하는 것을 제시하여 그들의 악행을 금지시키고 싫어하는 것을 제정하여 그들의 간사함을 방지한다.
을 : 법으로 백성을 지도하고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은 법망을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죄를 지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덕(德)으로 이끌고 예(禮)로 다스리면 백성은 엄치를 알고 착하게 된다.

- ① 갑 : 군주는 자기 나라와 다른 나라의 이익을 똑같이 도모해야 한다.
- ② 갑 : 군주의 덕에 바탕을 둔 왕도 정치를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 ③ 을 : 군주는 법(法)과 술(術)을 요체로 정치를 해야 한다.
- ④ 을 : 군주는 이기적 욕망을 가진 백성을 오직 상벌을 통해 조종해야 한다.
- ⑤ 갑, 을 : 국가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5번, 갑은 한비자, 을은 공자이다. 한비자는 강력한 법과 통치술을 통해 이기적 본성을 지닌 백성을 다스릴 때 사회 질서가 유지된다고 보는 반면, 공자는 군주의 덕으로 백성을 교화하고 예로써 다스리면 사회 질서가 유지된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① 목자의 입장이다. ② 맹자의 입장이다. ③, ④ 한비자의 입장이다

27.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통의 권력이 없는 상태에서 사는 한, 인간은 누구나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전쟁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공통의 권력이 없는 곳에는 법률도 존재하지 않으며,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는 불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 ① 국가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다.
- ②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평등한 권리를 누린다.
- ③ 인간이 사회를 형성하여 살아가는 이유는 신(神)의 명령 때문이다.
- ④ 국가 권력이 시민을 위한 의무를 실천하지 않으면 교체의 대상이 된다.
- ⑤ 국가의 의무는 시민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5번, 제시문은 홉스의 주장이다. 그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 보존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한다. 따라서 국가의 의무는 시민의 자기 보존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바로잡기 ① 홉스, 로크, 루소 등의 사회 계약설을 주장한 사상가들은 국가를 목적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 ② 홉스에 따르면 자연 상태는 인간이 서로에게 적이 되는 혼란한 상태이다. ③ 홉스는 인간이 사회를 형성한 까닭은 자기 보존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본다. ④ 저항권을 인정한 사상가는 로크이다.

28. 다음 사상가의 입장과 일치하는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질서 정연한 사회란 사회 성원들의 선을 증진하기 위해 세워지고 공적인 정의관에 의해 규제되는 사회이다. 모든 사람이 타인들도 동일한 정의의 원리들을 받아들여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회이며, 사회의 기본 제도들이 원리들을 만족시키고 있으며 또한 만족시킨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 사회이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이러한 사회 이념에 부합되도록 구성됐다.

<보기>

- ㄱ. 국가는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 ㄴ. 국가는 최소 수혜자를 위한 복지 정책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 ㄷ. 국가는 다수의 정의관에 부합하는 법을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 ㄹ. 국가는 시민의 평등한 삶을 위해 경제적 불평등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4번, 제시문은 롤스의 주장이다. 그에 따르면 국가는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분배와 복지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다수의 정의관에 부합하는 법을 시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와 같은 질서 정연한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바로잡기 ㄹ. 롤스는 질서 정연한 사회에도 불평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의 제거는 국가의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29. 갑, 을 사상가의 입장과 일치하는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시민이어야 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떠맡을 권리가 있는 나의 유일한 책무는, 어떤 때이고 간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조차도 매일매일 불의의 하수인이 되고 있다.

을 : 시민 불복종은 흔히 법이나 정부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기는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공동 사회의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게 되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기회균등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선언하게 된다.

<보기>

- ㄱ. 갑 : 개인은 법에 우선하여 양심과 정의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 ㄴ. 을 :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을 거부하는 정치 행위이다.
- ㄷ. 을 : 시민 불복종의 대상은 일부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에 한정된다.
- ㄹ. 갑, 을 : 정의감에 호소하는 시민 불복종은 비폭력적일 필요가 없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번, 갑은 소로, 을은 롤스이다. 소로는 개인의 양심을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근거로 보아 양심에 어긋나는 법이나 정책이 존재할 경우 즉각 불복종해야 한다고 보았다. 롤스는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일부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이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ㄴ.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보았다. ㄹ.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비폭력적일 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갑, 을의 공통 입장이 아니다

30. 다음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시민 불복종은 어느 정도 정의로운 민주 체제에서 법률이나 정책 또는 명령이 정의의 원칙을 어겼을 경우에 사회 협동 체제의 조건들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항거자가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 그리고 정의의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처벌을 감수해야 하며 비폭력을 전제로 해야 한다.

- ① 시민 불복종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가?
- ② 시민 불복종에 참여한 사람은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가?

- ③ 시민 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관에 의거할 때 정당화 되는가?
- ④ 시민 불복종은 법질서 자체에 대한 존중심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 ⑤ 시민 불복종은 종교적 가르침이나 개인적 신념에 어긋나는 정책에 대한 거부인가?

5번, 제시문은 롤스의 주장이다. 그는 시민 불복종이 사회적 다수에 의해 공유된 정의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은밀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⑤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사회적 다수의 정의관(=공공의 정의관, 공유된 정의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종교적 가르침이나 개인적 신념에 따른 시민 불복종은 인정하지 않는다.

31. ㉠의 입장에서 과학 기술에 대해 주장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산업 혁명으로 기계가 우위를 점하자 경쟁에서 패배한 수공업자들은 몰락하였다. 자택과 공동 작업장에서 스스로 의지에 따라 노동해 온 그들은 실업자가 되든지 자본가의 강제 아래 움직이는 공장 노동자가 되든지 아니면 그대로 머물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18~19세기에 ㉠ 노동자들은 산업 혁명의 결과 발명된 새로운 기계의 보급을 실업의 원천으로 파악하고 기계들을 파괴하기 시작하였다.

- ① 과학 기술은 인류에게 아무런 가치도 주지 않는다.
- ② 과학 기술이 발전한 사회는 비관적인 사회가 될 것이다.
- ③ 과학 기술이 가져다주는 유용한 측면을 발전시켜야 한다.
- ④ 과학 기술은 비인간적·비윤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다.
- ⑤ 과학 기술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3번, 제시문은 과학 기술 혐오주의를 대표하는 러다이트 운동에 관한 내용이다. 과학 기술 혐오주의는 과학 기술의 발전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과학 기술의 비인간적이며 비윤리적인 측면을 부각하거나 과학의 합리성 자체를 문제 삼는다. 과학 기술 혐오주의에서는 과학 기술이 인류에게 아무런 가치를 주지 않는다고 보고,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앞으로의 사회는 비관적인 사회가 될 것이라고 본다. 또한 과학 기술이 비인간적·비윤리적 문제를 일으키며, 과학 기술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본다. 바로잡기 ③ 과학 기술이 가져다주는 유용한 측면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은 과학 기술 혐오주의가 간과하는 측면이다.

32. 갑의 입장에서 지지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공포의 발견술’이란 악의 인식이 선의 인식보다 쉽기 때문에 윤리학은 희망보다 공포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핵무기가 개발되었을 때 주어지는 혜택보다는 그것이 가져다줄 수 있는 절망과 공포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자 폭탄, 화학 무기에 의한 끔찍한 살상의 역사 속에서 과학은 파괴의 도구가 되기도 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공포의 발견술은 유효한 책임 윤리의 기준이 될 수 있다.

- ① 우리는 현세대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한다.
- ② 우리는 과학 기술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가져야 한다.
- ③ 우리는 인류의 존속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반대해야 한다.
- ④ 우리는 과학 기술의 주된 목적을 경제적 이익 추구에 두어야 한다.
- ⑤ 우리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연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3번, 요나스는 자연을 파괴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대 과학 기술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윤리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요나스가 주장한 새로운 윤리학은 기존의 전통적 윤리학보다는 넓은 윤리적 책임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요나스는 인류가 존속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적 명령이기 때문에 인류의 존속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반대한다. 바로잡기 ① 요나스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대상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자연과 미래 세대까지라고 보았다. ② 요나스는 과학 기술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과학 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④ 요나스에 따르면 과학 기술의 주된 목적은 경제적 이익 추구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구현과 삶의 질 향상이다. ⑤ 요나스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33. 다음 입장에서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과학자는 연구 과정에서 규범을 준수하면서 자연을 탐구하여 진리를 발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과학은 사회적·경제적 이해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하면 진리는 왜곡된다. 사회는 과학의 발전을 지원해야 하지만, 사회적·경제적 목적에 따라 과학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

<보기>

- ㄱ. 과학자는 경제적 가치에 의해 통제받아야 하는가?
- ㄴ. 과학자는 연구 과정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워야 하는가?
- ㄷ. 과학 이론의 검증 과정에서 과학자는 책임을 가져야 하는가?
- ㄹ. 과학의 발전은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아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4번, 제시문은 과학자가 연구 과정에서는 규범을 준수해야 하지만, 과학 기술의 정당화 과정에서는 가치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바로잡기 ㄷ.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제시문의 입장은 연구 과정에서 규범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과학 이론을 검증하는 과정에서는 과학자가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34. 다음 입장에 대한 적절한 반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과학 기술자의 연구는 지적 호기심이 동기가 되어 순수하게 학문적 목적에서 이루어지고, 과학 이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연구 윤리를 지키면서 자신의 주관적 가치를 개입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과학 기술자는 자신의 연구가 가져올 결과를 미리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 기술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성급히 내리지 말아야 한다.

<보기>

- ㄱ. 과학 기술자는 연구 과정에서 객관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
- ㄴ. 과학 기술자는 과학 기술의 활용에서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 ㄷ. 과학 기술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한다.
- ㄹ. 과학 기술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해 사회적 책임 의식을 지녀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3번, 제시문의 입장은 과학 기술자들이 연구 과정에서는 연구 윤리를 지키면서 자신의 주관적 가치를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또한 과학 기술자는 자신의 연구가 가져올 결과를 미리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도덕적 평가를 성급히 내리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반론은 과학 기술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하고, 사회적 책임 의식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잡기 ㄱ, ㄴ. 제시문의 입장을 옹호하는 주장이다.

35. 같은 부정, 이른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을

가. <보기>

나. ㄱ. 과학 기술은 무비판적인 대상인가?

다. ㄴ. 과학 기술은 가치 중립적인 것인가?

라. ㄷ. 과학 기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한가?

마. ㄹ. 과학 기술은 가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번, 같은 야스퍼스의 입장, 을은 하이데거의 입장과 상통한다. 야스퍼스는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긍정하는 반면, 하이데거는 과학 기술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간주할 경우 과학 기술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우려한다. 따라서 하이데거와 같은 입장에서는 과학 기술에 대해 지속적인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며, 과학 기술은 가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바로잡기 ㄱ, ㄴ. 같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36. 다음과 같은 사회 변화가 가져온 긍정적인 측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오늘날에는 각종 유무선 통신 기술의 개발로 많은 양의 정보를 쉽고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물건을 구입하는 일이나 영화표를 예매하는 일, 은행 업무와 같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 정보 처리에 드는 비용 자체가 저렴해지면서 정보가 소수 엘리트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일상적으로 접하고 소비하는 물이나 공기와 같은 기본적인면서도 필수적인 재화가 되었다.

- ① 사람들의 사회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었다.
②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③ 개인의 삶의 질과 생활의 편리성이 향상되었다.
④ 좀 더 수평적이고 다원적인 사회로 변화되었다.
⑤ 사이버 폭력과 사생활 침해가 감소하게 되었다.

5번, 제시문은 정보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내용이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일상적인 업무를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는 등 개인의 삶의 질과 생활의 편리성이 향상되었다. 또한 사이버 공간의 등장으로 신분의 노출 없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었다. 그리고 정보 사회에서는 수평적이고 쌍방향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짐에 따라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원적인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바로잡기 ⑤ 정보 사회는 다양한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사이버 폭력 문제, 사생활 침해 문제 등 다양한 윤리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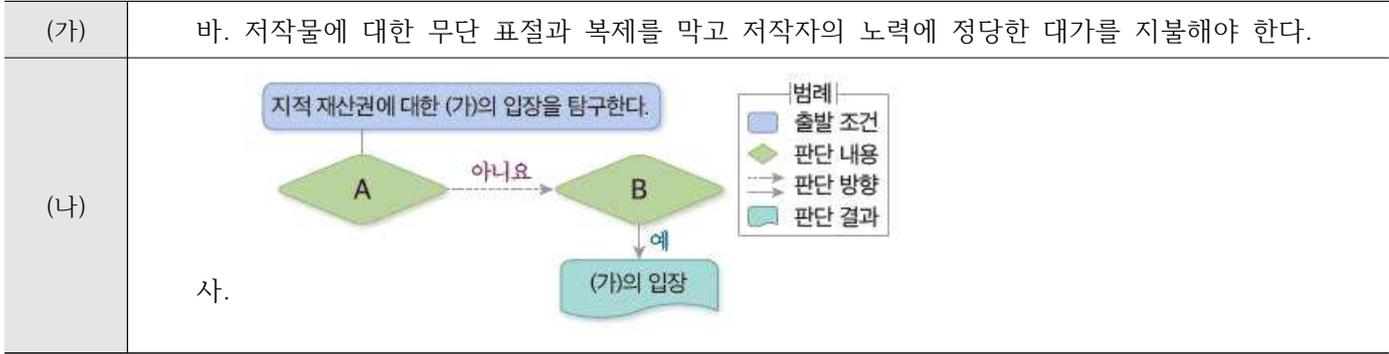
37. ㉠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란 인터넷, 휴대 전화 등 정보 통신 기기를 이용해 특정인과 관련된 개인 정보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지속적·반복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행위, 또는 온라인 그룹에서 고의로 특정인을 배제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이다.

- ① ㉠의 행위는 관용의 대상임을 인식해야 한다.
② ㉠의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에 공감해야 한다.
③ ㉠의 심각성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④ ㉠을 예방하기 위한 관련 제도나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
⑤ 대중 매체를 통해 ㉠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

1번, 제시문은 사이버 따돌림에 관한 내용이다. 사이버 따돌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따돌림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에 공감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사이버 따돌림의 심각성에 대해 학교나 가정에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사이버 따돌림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나 법률을 마련해야 하고, 대중 매체를 통해 사이버 따돌림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바로잡기 ① 사이버 따돌림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심각한 폭력이므로 불관용해야 한다.

38. (가)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 B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 ① A : 지적 재산권 보호가 정보 창작자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는가?
- ② A :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양질의 정보 생산에 도움이 되는가?
- ③ B : 모든 정보는 자유롭게 공유되어야 하는가?
- ④ B : 지식과 정보의 사용이 무제한적이어야 하는가?
- ⑤ B : 정보 창작자에게 지적 재산권의 배타적 소유가 인정되어야 하는가?

5번, 9)는 정보 사유론의 입장이다. 정보 사유론에서는 정보 창작자에게 지적 재산권의 배타적 소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바로잡기 ①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정보 사유론에서는 지적 재산권 보호가 정보 창작자의 창작 의욕을 고취한다고 본다. ②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정보 사유론에서는 지적 재산권의 보호가 양질의 정보 생산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③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모든 정보가 자유롭게 공유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정보 공유론의 입장이다. ④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지식과 정보의 사용이 무제한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정보 공유론의 입장이다.

39. ㉠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최근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대중 매체가 등장하였다. 인터넷에서 다양한 인적 관계망을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누리 소통망이 (㉠)에 해당한다.

- ① 이용자가 더욱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 ② 다양한 매체들이 하나의 정보망으로 통합되었다.
- ③ 송수신자 간의 일방향적인 정보 교환이 가능해졌다.
- ④ 특정 대상과 특정 정보를 서로서로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 ⑤ 수신자가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볼 수 있게 되었다.

3번, ㉠은 뉴 미디어이다. 뉴 미디어는 다양한 인쇄 매체와 방송 매체, SNS, 블로그, UCC 등의 사회적 매체와 스마트폰이 정보 전달의 중심 매체가 되고 있다. 이러한 뉴 미디어는 다양한 매체가 하나의 정보망으로 통합되는 종합화, 송수신자 간 쌍방향 정보 교환이 가능한 상호 작용화, 수신자가 원하는 시간에 정보를 볼 수 있는 비동시화, 특정 대상과 특정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탈대중화, 이용자가 더욱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 능동화 등의 특징을 지닌다. 바로잡기 ③ 뉴 미디어는 송수신자 간 쌍방향 정보 교환이 가능한 특징을 갖고 있다

40. (가) 사상가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 B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가)	이성적 존재만이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있다. 인간이 지니는 자연에 대한 의무는 인간성에 대한 의무에서 도출되는 간접적 의무일 뿐이다.
(나)	

- ① A : 자연은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가?
- ② A : 자연은 인간의 이익을 위해 보호되어야 할 대상인가?
- ③ B : 자연은 도덕적 행위의 주체인가?
- ④ B : 도덕적 고려의 기준은 쾌고 감수 능력인가?
- ⑤ B : 인간은 동물에 대해 어떠한 의무도 질 필요가 없는가?

1번, (가) 사상가는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의 입장인 칸트이다. 칸트는 자연을 무자비하게 파괴하고자 하는 성향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인간에 대한 의무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자연이 인간의 도덕적 감수성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하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을 폭력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그는 자연에 대한 의무는 인간의 도덕적 완성을 위해 요청되는 간접적 의무이며, 이성적 존재인 인간 상호 간의 의무만이 직접적 의무라고 보았다. 칸트는 자연을 도덕적 지위를 지닌 대상으로 보지 않으며,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 대상이라고 본다. 바로잡기 ② 칸트는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의 입장이기 때문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③ 칸트는 인간만이 도덕적 행위의 주체라고 보기 때문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④ 쾌고 감수 능력을 도덕적 고려의 기준으로 보는 것은 심어이다. 따라서 칸트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⑤ 칸트는 인간이 동물에 대해 간접적 의무를 가진다고 보기 때문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41. (가)의 갑, 을 사상가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 쾌락과 고통의 감정, 자신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능력 등을 갖는 개체는 삶의 주체이다.</p> <p>을 : 모든 생명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며, 인간은 생명체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p>
(나)	

<보기>

- ㄱ. A : 모든 생명체는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이다.
- ㄴ. A :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삶의 주체인 동물까지 확대해야 한다.
- ㄷ. B : 동물은 자신만의 고유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 ㄹ. C : 모든 생명체는 내재적 존엄성을 지니므로 이에 대한 도덕적 의무가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5번, 갑은 동물 중심주의 사상가인 레건이고, 을은 생명 중심주의 사상가인 테일러이다. 레건은 의무론에 근거하여 '삶의 주체'로서 동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한편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는 자기 생존·성장·발전·번식이라는 목적을 추구하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 도덕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테일러는 인간이 본질적인 측면에서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하다고 보지 않는다. 바로잡기 ㄱ. 레건은 모든 생명체가 아니라 삶의 주체인 동물까지만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간주한다. 모든 생명이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은 테일러와 같은 생명 중심주의의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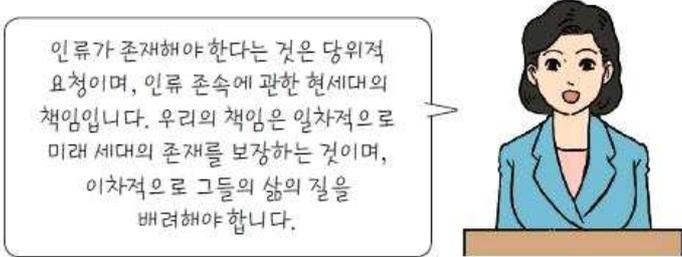
42. 갑의 입장에서 을의 주장에 대해 비판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인류는 공동체 전체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 대지 윤리는 공동체의 범위를 넓혀 흙, 물, 식물, 동물, 곤 집합적으로 대지를 포함한다.
을 : 모든 생명체는 자기의 생존, 성장, 발전, 번식이라는 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환경에 적응하려고 애쓰는 존재이다.

- ① 불특정 다수에게 과도한 책임을 요구한다.
- ② 인간이 다른 존재보다 더 가치 있다고 주장한다.
- ③ 생태계의 선을 위해 개별 구성원의 희생을 강요한다.
- ④ 개별 생명체를 보호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 ⑤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를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5번, 갑은 생태 중심주의 사상가인 레오폴드이고, 을은 생명 중심주의 사상가인 테일러이다. 레오폴드는 인간과 자연을 포괄한 전체 공동체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가 의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생존, 성장, 발전, 번식 등의 목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모든 생명체를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본다. 레오폴드는 테일러가 개체론적 입장에 있으므로 생태계 전체를 도덕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비판할 것이다. 바로잡기 ① 불특정 다수에게 과도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생태 중심주의의 한계에 해당한다. ② 인간이 다른 존재보다 더 가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간 중심주의이다. ③ 생태계의 선을 위해 개별 구성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생태 중심주의의 한계에 해당한다. ④ 생명 중심주의에서는 개별 생명체를 보호해야 할 근거를 제시한다.

43.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현세대는 두려움, 겸손, 검소, 절제 등의 덕목을 지녀야 한다.
ㄴ. 현세대만이 건강한 자연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ㄷ. 너의 행위의 효과가 인간 생명의 미래의 가능성에 관해 파괴적이지 않도록 행위해야 한다.
ㄹ. 너의 행위의 효과가 지상에서의 진정한 인간적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4번, 제시된 그림의 강연은 요나스의 책임 윤리에 관한 내용이다. 요나스는 현세대가 지녀야 할 덕목으로 두려움, 겸손, 검소, 절제 등을 제시하였다. 즉, 인류 존속을 위해 현세대의 잘못으로 미래 세대가 생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겸손한 태도를 지니며, 검소한 생활과 절제하는 소비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ㄴ. 요나스는 건강한 자연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는 현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4. 다음 사상의 입장에서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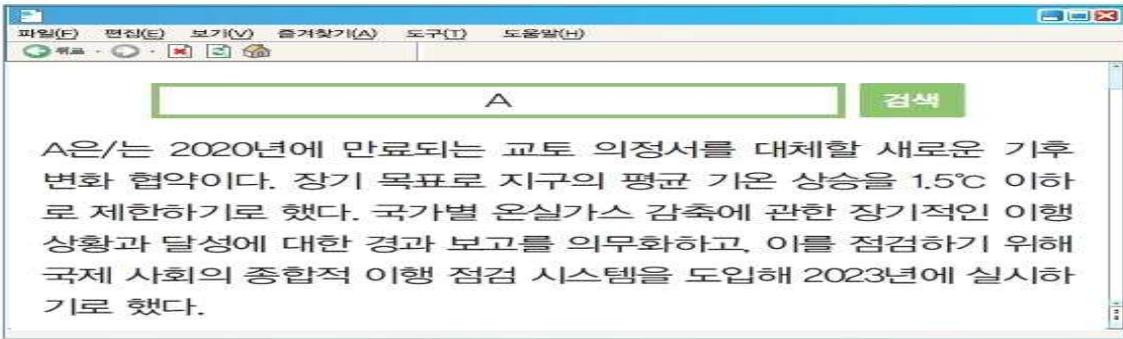
윤리는 개인 간의 관점에서 개인과 사회 간의 관계로 발전되어 왔고, 앞으로는 인간과 대지 간의 관계, 그리고 거기서 발전되는 인간과 동식물 간의 관계로 전개되어야 한다. 인간만을 도덕 공동체의 범위에 포함시켰던 전통 윤리와는 달리 동식물은 물론 대지까지 그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동식물과 대지에 대한 인간의 약탈은 정당하지 않으며 잘못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 ① 생태계 전체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인가?

- ②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 ③ 도덕적 고려 대상의 기준은 전일론적 관점에 근거하는가?
- ④ 도덕 공동체의 범위를 동물, 식물, 흙, 물까지 확대해야 하는가?
- ⑤ 인간은 생명 공동체 내의 위계 서열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는가?

5번, 제시문은 생태 중심주의 사상가인 레오폴드의 주장이다. 레오폴드는 토양과 물, 식물과 동물이 모여 있는 대지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인간을 대지의 정복자가 아니라 대지의 구성원으로 바라보며, 토양과 물, 식물과 동물로 이루어진 공동체 자체를 존중할 것을 강조하였다. 레오폴드는 생태계 전체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보고, 모든 생명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질문에는 긍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도덕적 고려 대상의 기준은 전일론적 관점에 근거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자연을 개체론적 관점이 아니라 전일론적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긍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도덕 공동체의 범위를 동물, 식물, 흙, 물까지 확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도덕 공동체의 범위를 대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긍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바로잡기 ⑤ 레오폴드는 인간이 생명 공동체 내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보지 않는다

45. 다음은 인터넷에서 A를 검색한 결과이다. A에 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ㄱ. 국제 탄소 시장 메커니즘의 설립을 금지하는 협약이다.
 - ㄴ. 기후 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협약이다.
 - ㄷ. 개발 도상국이 기후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선진국이 지원하는 협약이다.
 - ㄹ. 기후 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 도상국의 경제적 부담의 의무를 규정한 협약이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2번, A는 파리 협정이다. 파리 협정은 기후 변화의 근본 원인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며, 개발 도상국이 기후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선진국이 돕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이다. 바로잡기 ㄱ. 파리 협정은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 시장 메커니즘 설립에 합의한 협정이다. ㄹ. 파리 협정은 기후 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진국에 대해 자원 공급의 의무를 규정한 협정이다